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혼자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움을 주고 받는 사회성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무엇엔가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릴 적에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게 되면서 내가 의지할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를 의지하지만 커가면서 친구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맺게 되는 인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재물을 의지하고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는 유명세를 추구하기도 하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외모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드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들이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많이 소유하여 우리들의 삶이 조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지켜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의지할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4:6 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지금도 이 지구 상에는 어디에선가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앞 다투어서 무기를 사고 군대의 힘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전쟁을 대비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활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은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활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1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말씀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래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쳐서 다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만한 큰일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세라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힘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분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3:3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들은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빛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해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과 진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과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사탄 마귀의 본성인 거짓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빛과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분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43:5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